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회원조사팀 |
| 담당자 | 팀장 윤경태 대리 이채윤 |
| 전화번호 | 031-410-3030(247) |

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ansancci.korchem.net) ▶ 새소식 ▶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.

안산기업 84.2%가 설 연휴 '전체 휴무' 계획, 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 기업 '85.3%'

- 안산기업 84.2% '전체 휴무' 계획, 그중 77.5%는 '주말 포함 5일' 휴무
- 설 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 기업 '85.3%', 미지급 기업 '9.5%'
- 안산기업 57.9%, 체감경기 악화 전망... 내수 부진·원가 부담이 주원인

안산상공회의소(이하 안산상의)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안산지역 기업 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『2026년 안산기업 설 명절 실태조사』 결과를 발표했다.

설문 참여기업의 84.2%가 설 명절 연휴 '전체 휴무할 계획'이라고 응답했으며, '일부 생산라인 가동' 13.7%, '모든 생산라인 가동' 2.1% 순으로 응답하였다.

설 연휴에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이유로는 '납기 준수'가 72.3%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, '계약 물량 증가' 11.2%, '인력 부족' 5.5%, '수출경쟁력 강화' 5.5%, '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는 시스템상 문제' 5.5% 순으로 응답했다.

설 명절 전체 휴무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77.5%가 '주말을 포함한 5일'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, '6일 휴무' 11.3%, '7일 휴무' 10.0% '8일 이상' 1.2% 순으로 응답했다.

설문 참여기업의 85.3%가 '설 상여금 및 선물을 지급'할 예정이라 응답하였으며, 이는 전년 대비 5.3%p 감소한 수치이다. 반면 '상여금과 선물 모두 미지급'은 9.5%, '지급 계획 미정'은 5.2%에 그쳤다.

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 중 '상여금과 선물을 모두 지급' 28.4%, '상여금 단독 지급' 13.6%, '선물 단독 지급' 58.0%로 나타났다.

상여금 미지급 사유로는 '선물 등으로 대체' 34.1%, '지급 규정 없음' 34.1%, '연봉에 포함' 20.5%, '재무 상태 악화' 6.8%, '기타(귀향비 지급)' 4.5% 순으로 응답했다.

설 상여금 지급 예정인 기업 중 '정기상여금(고정) 지급' 64.7%로 전년 대비 9.0%p 증가, '특별 상여금 지급' 35.3%로 전년 대비 6.1%p 감소, '정기/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'하는 기업은 없었으며, 전년 대비 2.9%p 감소했다.

전년 대비 체감경기에 관한 질문에는 57.9%가 '전년 대비 악화'(매우 악화 24.2%, 다소 악화 33.7%)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, '지난해와 유사'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4.7%, '전년 대비 호전'은 7.4%라고 응답했다.

2026년 임금 인상률 계획으로는 31.6%가 '1~2% 인상할 계획'이라고 응답했으며, '동결' 28.4%, '3~5% 인상' 27.4%, '기타' 8.4%, '6~7% 인상' 4.2% 순으로 응답했다. 기타 의견으로는 '아직 정하지 않음'이 대다수였으며, '임금 동결하되 성과금 확대'라고 응답했다.

한편, 안산상의는 안산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, 경기전망지수(BSI) 등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. 관련 문의는 안산상의 회원조사팀(T. 031-410-3030 / 내선 247)으로 하면 된다.

※ <붙임> 『2026년 안산지역 설 명절 실태조사』 보고서 1부. 끝.